

시온 주보

제2538호

2025년 1월 1일(다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호수를 건너는 성모 마리아
조반니 세간티니
(Giovanni Segantini, 1858-1899)
1886년, 캔버스에 유채, 120x93cm
세간티니 미술관, 스위스 생모리츠



입당 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 송 |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

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갈라 4,4-7

복음환호송 |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셨네. ◎

복 음 | 루카 2,16-21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I. 위기에 놓인 인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망의 희년인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에 가톨릭교회는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행사인 희년을 거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장엄한 선포는 온 땅에 울려 퍼져 땅의 사용, 재화의 소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자기 소유물을 빼앗긴 이들을 비롯하여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구약의) 나팔 소리는, 억압의 숙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희년은 해방을 가져다주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세우고자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때입니다. 지구가 착취당하고 우리 이웃이 억압당하는 많은 상황에 대하여 우리도 목소리를 높이고 고발해야 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의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말씀하신 “죄의 구조”의 형태로 이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구조는 일부 사람들의 불의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공모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강화되고 지속됩니다.

(공모 네트워크와 같은) 상호 연결된 구조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얹혀서 우리 세상에 큰 혼란을 야기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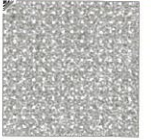
다. 저는 특히 모든 종류의 불평등,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환경 파괴, 허위 정보로 의도적으로 조성된 혼란, 모든 유형의 대화 거부, 군수 산업에 쏟아 부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인류 전체의 존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고통받는 인류의 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가끔 어찌다가 하는 자선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II. 문화적 변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희년의 거행은 지상 재화가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불의와 불평등의 현재 상황에 맞서는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의는 가난한 국가들을 덮에 빠뜨리는 부패로 더욱 심화됩니다. 빚진 이들을 착취하려는 사고방식은 특히 남반구에서 수많은 국가를 짓누르는 현재의 ‘부채 위기’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외채가 부유한 국가의 정부와 민간 금융 기관들이 단순히 자기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난한 국가들의 인적 자원과 천연자원을 부도덕하고 무차별적으로 착취하는 통제 수단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이번 희년의 정신



으로, 저는 국제 사회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생태적 빛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외채를 탕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이는 연대를 위한 호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의를 위한 호소입니다.

III. 희망의 여정: 세 가지 제안

하느님께서 아무에게도 빛을 지고 계시지 않지만,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과 지구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희망과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희망은 관대함 안에서 넘쳐 흐릅니다. 희망은 계산하지 않고, 은연중에 요구하지 않으며, 잊속을 챙기지 않습니다. 희망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며 온갖 종류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총의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세상 만민이 삶의 존엄성을 되찾고 희망의 길을 다시 나서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채의 위기를 이겨 내고, 모든 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유한 국가들은 생태적 빛을 인정하고, 빛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인 국가들의 부채 탕감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금융과 채무의 악순환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저 일회적인 자선 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새로운 금융 체계가 고안되어 민족들의 연대와 화합에 기초한 '세계 금융 현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저는, 모든 나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이 형벌 제도는 생명의 불가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용서와 재화에 대한 모든 인간적 희망을 없애 버립니다.

나아가, 전쟁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군비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제 기금 설립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이 기금은 기아 근절 그리고 빈곤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증진과 기후 위기 대처를 목표로 하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IV. 평화의 목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여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분명 그토록 바라던 목표인 평화가 동트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평화가 꽃피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인간적 협상 테이블과 계약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 참되고 항구한 평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장 해제된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참평화를 찾아 나섭시다. 무장 해제된 마음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짓누르는 빛을 탕감할 준비가 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모든 이가 더 나은 세상 건설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저는 각국과 정부의 수반, 국제기구 지도자, 다양한 종교 지도자,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 어린 새해 인사를 보내며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제58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 전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 참조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Francisco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과 혼란을 안겨 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촉발된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과 평화로운 연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4)라고 말씀하시며,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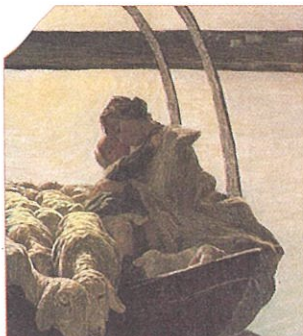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갈 올 한 해도 이러한 희망으로 굳건해지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희망의 가능성이 더욱 꽃을 피워,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해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희망으로 2025년을 살아가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희년으로 선포한 해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번 희년의 주제를 ‘희망’으로 정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와 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되새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희년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해입니다. ‘희망’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길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년의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사랑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모님

성화 해설

조반니 세간티니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 후 스위스 산골로 숨어들어 일생 동안 알프스의 풍광과 일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주 산책하던 생모리츠 호수를 배경으로 오늘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의 반영으로 하늘과 땅은 빛으로 하나 됩니다. 새벽이나 아침은 부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기를 안은 성모님께서는 나룻배를 빌려 양 떼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구원의 장소로 가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일상 한 권에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평화로운 호수를 건너듯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